



김대실 교수가 일제시대 한국 여성들에게 자행된 일본정부의 만행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. <전홍철 기자>

“정신대문제 전세계에 진실 알려야”

‘침묵의 소리’ 저자 김대실교수
 조구익아브 트로히서 주제발표

서 변호사가 게스트로 참석, 함께 토
 론하기도 했다.

중군위안부 행사는 17일과 18일 클

있다는 것이다.

INS LA지부 새론 주
 “최근 1~2년새 범죄자
 법안이 대폭 강화돼 왔으
 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
 라고 배경을 설명했다.

김슨 공보관에 따르면
 경찰 및 연방공무원 등
 고가 들어오면 해당도

강도 연

한인 대상 범
 경찰 순찰 강

연말연시를 맞아 강도
 가 늘어날 것으로 예
 LA카운티 셰리프와 I
 들에게 각별한 주의를
 다.

카운티 셰리프 동양
 테넌트 셰실 램보는 “자
 샌게이브리얼 일대의 주
 의 연쇄강도 사건이 발생